

만남

부활절 특집

영락이여, 올라가라

(사사기 1:1~2)



표지설명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온전한 회개와 준비로 빛나는 우리의 믿음, 소망의 시작을 알립니다. 새로운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정으로 함께해주세요.

사진 유승현 집사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 실현

5대 본질

예배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3월 목회력

- 02 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08 금 · 연합권찰모임 상반기 개강
- 10 주일 ·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제직회
- 17 주일 ·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새가족환영회
- 25 월 ~ 30 토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 31 주일 · 부활주일, 부활주일 음악예배

- 03 주일 ·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세례입교식, 찬양예배 성찬
- 09 토 · 토요직장권찰모임
- 15 금 · 심방준비회
- 24 주일 · 종려주일, 사회봉사주일
- 29 금 · 성금요일

만남

2024년 3월호
통권 601호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사랑으로 올라갑시다 김운성

부활절 특집

05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어요 임영수

08 사순절 40일...십자가 부활을 소망하자 김진우

10 말씀과 음악으로 드리는 부활주일 저녁기도 베들레헴찬양대

12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뜻 문화선교

특별기고

14 3.1정신, 나라 어려울수록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 김형식

17 독일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정세 문해성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20 50주년기념관에 놀이공간·부모쉼터 들어선다 이현지

다음세대/청년광장

24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새학기 방덕종

25 아동부 봄맞이성경학교 강리원·나지율

28 중등부 겨울수련회 윤성유

30 고등부 겨울수련회 최수진

33 교사교육부 모집, 수료 간증 권현준·김예진·송현근

36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청년부

38 교회 소모임, 리더십 배울 좋은 공간 이덕주

땅끝까지 이르러

42 걱정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임대현

46 발리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다 대학부

48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백예빈

49 남을 위한 기도, 얼마나 소중한지... 조인서

50 아포스톨로스(사도)로 살아간다는 것 박효빈

51 이젠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정현주

영락의 울타리

52 '거룩한 기적 함께하자'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전재량

54 소통과 일치의 성령님 안에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민하

56 비만 탈출? No Pain, No Gain! 김은경

교회소식

58 2024 제직부흥회 "모세와 함께한 아론과 훌과 같은 제직" 외

64 구원의 염원 담아...두 팔 벌린 예수님 정재원

65 영락시어터 3월 상영 영화



사랑으로 올라갑시다

김 윤 성 위임목사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13~14)

큰 교회를 이루고 성공한 목회자로 존경 받으며 은퇴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후배 목사가 후회되는 일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후배는 또 물었습니다. “평생 목회했으니, 평생 사랑한 것 아닙니까?” 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선 형식적으로 사랑한 것을 후회한다”라며 성도의 아픔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고, 늘 바쁘다면서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만 대했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정말 필요한 사랑을 하지 못했다”라며 엉뚱한 처방을 내리는 의사처럼 정말 필요한 도움은 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더 깊이 이해해주지 못했다”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넷째로 바르게 사랑하지 못했다”라며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주

는 것은 신앙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잘못된 사랑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다”라며 점차 식었고, 후에는 잊었다고 하셨습니다.

노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은퇴하셔서 사람들을 떠났고, 사람들도 목사님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사람 사랑의 방식’을 배우고 있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사랑할 줄 몰랐다” 노 목사의 후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십니다. 남자다운 강함은 로마 제국의 미덕이었습니다. 군사 강국이었던 로마는 남자다움과 강함을 숭상했습니다. 검투사들의 경기는 남자다움을 드러내는 전형이었습니다. 잔인함에도 검투 경기가 이루어진 것은 로

사랑으로 핍박 이겨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새봄, 무슨 거창한 일보다 사랑부터 시작하길...



마가 강함을 숭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 사도의 충고가 13절로 끝났다면, 교회의 덕과 로마의 덕은 같은 수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4절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덧붙입니다. 강함에 사랑을 첨가했습니다. 사랑 없는 강함은 잔혹성을 드러내지만, 사랑이 첨가된 강함은 매우 매력적인 힘이 됩니다. 사랑이 깃든 강함은 약자를 보호합니다. 어려운 일을 해결합니다. 경쟁자를 제거하는 승리가 아니라, 골인 지점까지 쓰러진 경쟁자를 안고 달리는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초대 교회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함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영적 강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강함에는 사랑이 수반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이와 사랑을 주시는 이가 같은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는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 곁에는 늘 약한 사람이 행복하게 함께 머물렀습니다.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강자와 약자의 동행이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극심한 흉년과 가난에서도 굶어 죽는 형제자매가 없게 했습니다. 모진 핍박도 견딜 수 있는 사랑의 울타리를 만들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최후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의 충고

목회 후반기에 이른 저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소위 부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칭찬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그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해도 사랑 없는 설교라면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사랑뿐입니다.

전국 곳곳에 <사랑의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이름을 가진 교회가 사랑이라는 가치를 위해 다른 가치를 뒤로 미루는 교회, 더 잘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면 영락교회도 사랑의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우리 표어는 <영락이여, 올라가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수천 미터의 산을 넘던 인도의 성자 쩌다싱은 친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쓰러진 행인을 둘러업었습니다. 걸어가다 보니 체온이 올라 땀이 나서 추위를 이길 수 있었고, 얼마 후에는 얹힌 사람도 깨어났습니다. 둘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먼저 떠났던 친구는 얼어 죽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새 가족, 약한 이들, 드러내지 않는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수고한 이들을 위해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근거하여 살고 묵회하신 어른이십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거창한 새로운 일보다 사랑이라는 감동의 일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안남**



부활절 특집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여정

몇 년 전 아내와 함께 감동적인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제목은 부활(원제: RISEN)입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혼돈의 상황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예루살렘 분위기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예수를 죽이면 끝이라 여겼던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의 청에 못 이겨 예수를 내어준 로마의 관원들, 그리고 예수를 추종했던 제자들과 우리 모두가 불안정합니다. 메시아를 죽인 세상은 혼돈, 불안정, 군중의 아우성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죽었지만, 혼돈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부활 예수를 만나 삶이 바뀐 로마 호민관

영화에서 부활의 증인은 유대교 지도자도, 제자도, 예수님의 가족도 아닙니다. 예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하지만 직책 때문에 그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여해야만 했던 한 남자, 로마의 호민관 클라비우스입니다. 당시 호민관 클라비우스라는 인물이 실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한 로마인이 실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총괄하고 처리한 로마 측의 실무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그 사람을 호민관 클라비우스로 등장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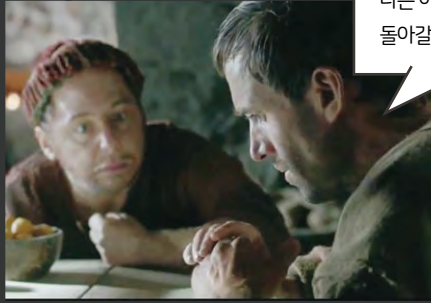
그 당시 호민관은 군사적인 문제를 처리하거나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로마의 관직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는 호민관 클라비우스는 빌라도 총독의 심복으로 그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노심초사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연일 소동을 일으키는 군중들 사이에서 질서를 지킬 방안에 대해 고심합니다. 클라비우스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확인한 자였기에, 부활은 가담치도 않은 황당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광신도의 짓이라며 다급히 시신을 찾아 나섭니다.

그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수색하고 제자들을 찾아내 시신의 행방을 추궁합니다. 그 과



임영수 목사
모세골 설립자

“분명한 사실은
나는 이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에서 호민관은 비로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대로 듣게 되고 예수의 부활을 둘러싼 거짓과 모략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와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전혀 몰랐고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 심지어 예수를 죽이기까지 한 죄인인 호민관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호민관은 쫓는 자에서 쫓기는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와 그의 제자들처럼 새로운 삶의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영화에서 마지막 대사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정말 사실입니까?” 질문에 호민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 나는 이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한 경우 이전에 의미 있던 것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맛있던 것이 맛이 없고, 그전에 즐기던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됩니다. 이것은 허무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삶의 충만함에 접근해 갈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바울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증인이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증인들의 이야기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끝까지 그 여정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 도시 타르소스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출생은 주후 5년 즈음으로 추측되는데,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는 그 당시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율법에 매우 충실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육 견해와 신학적인 배경에 맞지 않으면 타협하지 않는 매우 굳은 성품이었고, 율법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문학에도 매우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테반의 순교 이후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 다마스쿠스에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지

난 날로 돌아갈 수 없는 생의 여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돌아갈 수 없는 여정에 오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동시에 그 여정으로 가고 있는 바울 자신의 영적 여정의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해도 전적으로 자신의 의로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으며,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며,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존재감은 이러한 것들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만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매우 당당하고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울은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겼습니다.”(빌립보서 3:7~8)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자기 원형을 찾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전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용서되고, 하나님에 의해 화해되고, 하나님에 의해 실현되어가야 할 새로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의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생의 목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용서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다면 그 이상의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되어가야 할 자기 원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바울의 생의 목표는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빌립보서 3:12~15) **만남**

* 이 글에 인용된 성경 본문은 「새번역 성경」(대학성서공회)의 번역을 따랐다.

사순절 40일...십자가 부활을 소망하자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에 성도들은 부활절을 준비하며 경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왜 사순절이 생기게 되었는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절에 세례 베풀던 초대교회 전통에서 유래

먼저 사순절이 지켜지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사순절이 세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에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의미를 가지는 세례식을 베풀곤 했습니다. 터툴리안과 히폴리투스 등의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에 세례받는 것이 매우 의미 있고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에 세례받는 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겼으며, 사순절은 4세기 말에 이르러 세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금식, 회개 ... 예수 수난에 동참하는 시간

사순절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사순절은 세례받을 성도들이 이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세기경 세례 후보자들은 부활주일 새벽 세례를 받기 전에 약 40시간 정도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켰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시간과 맞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점차 이 준비 기간은 한 주간으로, 다시 30일로 늘어났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사순절을 40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세례받을 성도들과 기존 성도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바로 금식이었으며, 이는 '이전의 나 자신을 죽이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세례를 준비하며 그리



김진우 목사
서대문·은평교구
선교부(국내, 학원)

스도인이 누구인지 더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겼습니다.

다음으로 사순절의 의미는 개인적인 경건과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례받을 성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경건한 성도들 역시 금식에 참여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지켜지던 사순절은 어거스틴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수난을 함께 기억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회개하고 자신을 부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고대하며 지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는 시간으로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순절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사순절이 부활절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절기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부활을 소망함으로 지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사순절이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임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죄 된 나의 자아와 욕심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만일 여전히 나 자신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인이라면, 다시 나 자신이 살아났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다시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어주시고 정직한 영광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사순절 기간 금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참여하며, 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금식의 대상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의 참된 의미는 세상의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내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즐거워하는 오락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깊이 갈구하는 것이 참된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부활을 소망하는 시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는 시간, 금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참여하며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

영락교회

Easter Celebration with Music & Readings

말씀과 음악으로 드리는 부활주일 저녁기도

Christ lag in Todesbanden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계셨으나 BWV 4 J. S. Bach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남규 (초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현철 (초연) 외

베들레헴 찬양대
지휘 백정진
오르간 김진
협연 알테 무지크 서울 (악장: 한혜리)

2024. 03. 31 SUN 5PM

영락교회 베다니홀

주최 영락교회 음악부

주관 베들레헴 찬양대

부활절은 춘분 이후 만월 다음에 오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민감하게 선편하는 교회음악인 사이에서는 ‘부활절 전까지는 눈이 내려’, ‘부활절이 지나야 진짜 봄이야’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꽃 피는 봄이 주는 생명력은 사순의 기간 뒤에 맞이하는 부활의 계절이 갖는 정서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베들레헴 찬양대는 2024년 부활절 음악회를 준비하며, 사순절에서 부활절로 나아가는 흐름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탄식과 애통함’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이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위로와 생명’을 노래합니다. 이 흐름 위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반영하는 음악을 노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몇 곡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에서는 바흐(J. S. Bach)의 교회칸타타 BWV 4를 노래합니다. 이 곡은 바흐의 젊은 시절, 부활주일 예배용으로 만든 20분 분량의 작품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찬송시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계셨으나(Christ lag in Todesbanden)”의 7절을 각 악장에 한 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구약 출애굽의 전날 밤 지켰던 유월절의 전례를 신약의 부활 사건에 대입하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부활의 신비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애굽에서의 탈출은 죄와 죽음의 세력에 묶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구원의 역사를 예견하는 표징일 것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앞, 뒤에는 애통함과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과 찬양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위촉 작곡

을 통해 초연되는 두 성가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지난 2002년 베다니홀 천정이 붕괴되는 사고로 고등부 예배 현장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故이원형 집사님을 기억하며 유가족께서 기탁하신 헌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인께서는 고등부 교사 뿐 아니라 베들레헴 찬양대 부대장으로도 섬기셨기 때문에, 찬양대 안에서도 그때의 갑작스런 이별과 아픔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곡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시편 126:5~6의 말씀을 가사로 합니다. 우리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되돌아보고,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며, 애통함 뒤에 예비하신 기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 곡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는 아가서 2장의 말씀에 곡을 붙였습니다. 꽃 피며 새들이 노래하는 봄의 소식이 부활의 아침 빈 무덤을 찾았던 절망 속 여인들에게 주셨던 소망과 생명의 메시지로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두 곡은 각각 정남규, 이현철 작곡가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연초부터 오이코스를 통해 출애굽과 레위기의 말씀으로 유월절과 제사의 유래를 알아가며 사순절을 준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제 봄과 함께 맞이하게 될 부활의 날, 어린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기쁨의 소식을 말씀과 음악으로 함께 누리며 축하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글 | 백정진 집사 _ 베들레헴찬양대 지휘자

무료영화상영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4년 3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50주년기념관 베다니홀(B1)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너는 내 아들

4월 1일 부활절 특집 <너는 내 아들> (주)비전스토리 <11월 24일> 드림웍스 <11월 24일> 개봉 <11월 24일> 개봉 <11월 24일> 개봉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선교부

시험 받은 믿음, 잉태된 소망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뜻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부활절을 맞아 영락교회에서는 특별한 부활 영화 상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때로는 그의 선택에 대해 궁금증을 품곤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편안한 삶을 내던지고 길을 떠났을 때,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고민해봅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앙의 깊이를 탐구할 수 있는 영화가 3월 30일(토) 베다니홀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 영화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오지 못한 시기를 보낸 후, 이제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며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궁금증을 다시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의 계획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쉽게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영화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이 영화를 통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영적인 성장과 공동체의 연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며, 신앙을 공유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만남**

3.1정신, 나라 어려울수록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



남강 “3월 1일이면 매 맞은 곳 아파 몸 못 가늌”

지금부터 40여 년 전, 남강문화재단에서 일하던 시절, 재단 이사장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종종 찾아뵙고 남한산성에서 말씀을 듣던 추억이 새롭다. 한 번은 한 목사님께서 학창 시절 은사인 남강 이승훈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1918년 가을, 졸업을 앞둔 한 목사님과 친구 두 명이 남강의 거처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날 저녁, 선생님은 초저녁 시간인데 몸이 아파 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 맞아주시면서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오늘은 몇 해 전에 감옥에서 일본 경찰에게

실컷 매를 맞은 그날인데, 이상하게도 매년 이날이 되면 매를 맞았던 곳이 몹시 아파서 몸을 가누지 못하겠다”고 하셨다. 이는 ‘105인 사건’ 때 당한 고문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날 한 목사님은 남강 선생님의 등을 쓰다듬어 드리다가 등바닥이 온통 채찍 자국인 것을 보고 한없이 울었다고 한다.

3.1운동 선두에 선 남강 이승훈 장로

이듬해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에서 소학교 교사로 근무하게 된 후, 1919년 3월 1일에 벌어진 큰 독립운동 소식을 듣고 거리에 나갔다가 남강이 민족대표로 선두에 나선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런 심한 고문을 당하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며, 몇 개월 전 집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너희들 들어라. 나 이승훈이는 죽을 때까지 조선 사람으로 살다가 조선 사람으로 죽겠다” 하신 말씀이 기억나더라고 회고하셨다. 이렇게 철저한 민족교육과 기독교



김형석 목사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이사장
그레이스교회

교 교육을 가르친 오산학교(五山學校)는 한국 근현대사에 수많은 민족지도자를 배출한 명문 사학이다. 이 학교는 남강 이승훈 장로가 설립하고, 고당 조만식 장로가 교장으로 계셨으니, 이 학교에서 한국교회사의 큰 별인 주기철 목사와 한경직 목사가 배출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운동은 한국 독립을 위한 큰 운동이었다.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에서 한민족이 살던 곳이라면 어디서나 독립을 외쳤다. 이 운동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켜 한민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은 한국사에서 근대와 현대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으로, 국민들의 민족 의식과 자유에 대한 생각을 높였다.

기독교, 3.1운동 통해 국민 종교로

3.1운동이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이유는, 이 운동을 통해 외래 종교인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종교계와 학생들이 주도했으며, 특히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민족대표로 선정된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민족종교를 표방하며 당시 100만 신도를 가지고 있던 천도교에 비해 한국에 도입된 지 40년도 안 되고 신도 수가 25만 명에 불과하던 기독교가 가장 많은 민족대표를 배출한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하나는 민족대표 선정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남강의 활동에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강한 애국심이었다.

실제로 3.1운동을 주동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



제주도 조천의 '이승훈 선생 유배소' 보존식(1990년 10월)
왼쪽부터 한경직 목사(남강문화재단 이사장),
김종영(오산중 교장), 정영택(성안교회 목사), 그리고 필자.
이승훈 선생은 1911년 '안명근 사건'에 연루되어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겪어야만 했다.



을 종교별로 나눠보면, 전체 인구 중 그리스도인이 단 1.25%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자의 22.5%가 기독교인이었다. 이 비율은 15%인 천도교나 1% 미만이던 불교와 유교를 압도할 정도였으니, 기독교가 '국민의 종교'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 기독교, 애국하는 종교가 된 까닭

그러면 한국기독교는 왜 애국하는 종교가 되었을까? 그것은 당시 국내외 정세와 관련이 있다. 19세기 말, 조선은 제국주의 세력이 경쟁하는 장소가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관리들의 부패와 자연재해로 인해 백성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 그런데 선교사들도 이



한성감옥 집단 기독교 개종 사건(1902~1904)



1903년 한성감옥에 수감된 당시 죄수복을 입은
28세의 우남 이승만(왼쪽)과
53세의 월남 이상재(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제공 이승만기념관.com

같은 조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일기를 살펴보자.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청책을 부수고 일어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어 있는 죄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광명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아펜젤러 일기, 1885. 4. 5.)

이런 바람을 가진 선교사들은 조선에서 교육과 의료사업을 통해 활발한 선교활동에 나섰다. 근대식 학교를 설립하고 민주주의와 애국심을 가르쳤다. 서구 문물을 접하게 된 젊은이들은 기독교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비전을 발견했고, 독립협회를 통해 민족주의와 시민운동도 체득했다. 또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구국을 위한 독립운동에 나선던 우국지사들이 중생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이다.

독립운동과 성령 체험…한국 교회 새 탄생

1902년부터 1904년 사이, 한성감옥에서 이승만의 전도

로 40명 이상의 죄수와 옥리가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 가운데는 이상재, 이원궁, 홍재기, 김정식, 유성준과 같은 저명한 인사들도 포함되었다. 이 사건을 ‘한성감옥 집단 개종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콜레라로 가득 찬 감옥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을 목격하며 성령을 체험한 것이다. 이처럼 독립운동과 성령 체험이라는 이질적인 두 개의 콘텐츠가 만나 새롭게 태어난 곳이 한국 교회이다.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의 민족적 열정이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작사한 한서 남궁억은 “한 몸 안에서 불타 솟아난 신앙이라야 나라도 구하고 겨레도 구제한다”라고 말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이다. 나라가 어려우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한남**

독일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정세

2022년 7월, 유럽의 난민이나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독일에 정착하여, 독일이 통일 후 어떻게 사회 통합을 이루었는지 배우고자 정든 영락교회를 떠났다. 유학을 떠나기 전, 세상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길 간구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여전히 독일어를 배우는 중이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에 있을 때보다 한반도의 정세 상황에 관해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다. 먼 타국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니, 내부에 있을 때와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문해성 집사
종로·성북교구
전)북한선교부 기획팀

독일 주력 언론, 김정은의 전쟁 도발 가능성까지 분석

2024년 새해가 되면서, 독일의 주요 언론도 김정은의 강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빠짐없이 보도하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매체와 전문가들도 같은 소식을 전하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보는 관점은 우리와 조금 다른 것 같다. 한국에서는 김정은의 발언과 행동을 분석할 때, 주로 올해 있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북한 내부의 단합을 강화하려는 목적, 한국 문화의 영향을 막으려는 노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해외 뉴스에서는 이런 사건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중국-대만의 긴장과 같은 국제정세와 연결지어,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까지 분석하고 있다.

북 도발 익숙한 한국선 의미 있게 수용 안해

우리나라 매체들도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관해 어떻게 분석하는지 보도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이를 의미 있게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에 말려드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불안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2년이 지나면서, 지금 세계는 냉전시대 못지않게 진영싸움에 직면해 있다. 그 기준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반미진영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그 이념과 가치를 분명히 한다. 하지만 반미진영은 대부분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주된 이유도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편, 즉 나토에 가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두 개의 전선 마주한 미국

국제정세에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한 것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다. 독일에서도 하마스를 지지하는 무슬림들의 시위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독일 정부와 시민들은 이스라엘 지지를 밝혔지만, 독일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의 동요를 우려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미소짓고 있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사진이 연일 뉴스에 나오면서, 미국이 이끄는 세계 질서 유지전략에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많아졌다. 이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옛 소련 국가들, 그리고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미국에 반대하면서, 전 세계에서 두 개의 큰 대립 구도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북, 반미 행동대장 자처하며 행동 나설 수도

이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미사일 기술을 받는 등의 거래를 활발히 하면서 남한에 대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단순히 대남전략의 일부가 아니라 특히 미국에 보내는 강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처한 거대한 두 개의 전선에서 또 다른 전선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1950년 6·25전쟁에서 미국의 개입으로 이루지 못한 한반도의 무력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핵무장을 지속해서 강화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며 여

러 전략을 세웠다. 종전 및 평화조약체결을 추진했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빅딜을 이루려 했지만, 모두 무산되었다. 이번에 북한이 보이는 행동도 그들의 셈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속을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일 수 있다.

도발 수위 높이는 북의 진짜 속셈은 적화통일

북한은 올해 치러질 미국 대선과 현재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 상황에서 원하는 바를 얻을 좋은 기회로 대남 도발을 획책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우방국 러시아와 중국이 예전보다 더 강해진 국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미국에 대항할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앞세워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세계질서 유지전략에 문제를 일으키는 기회로 여길 수 있다.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한반도 상황은 1950년 6월 초 이후로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전쟁을 시작할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본다”라고도 했다. (연합뉴스 2024. 2. 1)

“한반도 1950년 6월 이후 가장 위험”

독일에서 느끼고 기도하는 것은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이 간단한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또는 러시아와 무기나 미사일 기술을 주고받기 위해, 혹은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기 위해서만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같은 행동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균형이 기울어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도 이를 ‘기존에도 지속되어 오던 단순한 도발’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북한과 일부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들을 제외하고, 구 사회주의나 독재국가들이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국민에게 떡을 주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인권을 박탈하고 독재를 일삼고 있다. 사탄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마태복음 4:4)

신앙의 자유 위협하는 북 기억하고 기도해야

우리가 지키고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배부르고 안녕한 삶이 아니다. 물론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맞서 싸웠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독재와 테러에 맞서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리 한반도에서도 ‘평화의 탈’을 쓰고 신앙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려는 독재 세력이 항상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 **만남**

50주년기념관 7~8층 리모델링 놀이공간·부모쉼터 들어선다



예상이미지

우리 교회가 50주년기념관 7층과 8층을 교회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이는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코이노니아분과)의 일환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장 박홍준 장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일환

7~8층(376㎡, 약 114평) 유휴공간 활용

키즈플레이존, 체육시설, 휴게공간 마련

2개월여 공사... 5월 가정의 달 준공예배 예정

안전사용·기존 공간의 활용 제고 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요?

7층 중앙의 빈 곳과 8층까지 뚫린 높은 층고를 활용해 실내 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먼저 중앙에는 다목적 체육시설이 들어섭니다. 축구 등 간단한 공놀이를 할 수 있고, 워십 댄스도 연습할 수 있는 운동장 형태의 공

간입니다. 그 주변부로는 7~8층 사이 뚫려 있는 층고를 활용해 영유아 놀이시설이 들어섭니다. 미끄럼틀과 트램펄린 등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이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발생하는 소음을 막기 위해 시설 외곽에는 투명한 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켜보는 부모나 보호자를 위한 공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입니다. 3040 젊은 부모나 보호자를 위한 휴게공간도 준비 중입니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7층 활동실 네 곳을 터서 커피도 마시고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예정입니다.

공사 일정과 완공 예정은 언제인지요?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준공 예배를 드리고 그즈음 첫 시범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 약 2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기간에는 7~8층 사용이 제한될 것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7층과 8층을 잇는 나선형 계단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 휴게공간이 들어설 7층 활동실 네 곳을 하나로 터야 합니다. 놀이시설과 다목적 운동장 조성까지 총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교회 안에 실내 놀이터가 들어선다는 아이디어가 획기적입니다.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요?

교육부 사무실이 8층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보니 7층 빈 곳에서 페트병으로 축구를 하고 있더군요. 우리 교회는 아직 전적으로 미래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드

는 거예요. 7~8층 공간 활용성을 높여보자는 아이디어로 출발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이 진행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요?

주일에 교회학교를 찾아오는 어린이들과 학부모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가족이 비용을 지불하고 실내 놀이시설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 학부모들은 “교회에 실내 놀이터를 조성해 주면 너무나 좋겠다”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평일에도 교회를 이용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교회 부설 영락유치원이나 영락어린이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이 되기를 최종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부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새친구 초청행사에 장기 결석자 49명을 포함하여 228명의 다음세대가 대면예배에 참석했



습니다. 전도받은 새친구들이 대면예배에 참석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과 놀이공간을 마주하거나 그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에 참여한다면 전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안전 문제라든지 시설 관리 문제, 구체적인 운영시간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5월 준공 예배 후에 시범운영을 통해 성도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미래세대를 위

해 우리가 배려하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교육부는 작년 한 해 대면 예배 평균 출석 학생 수를 1,853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막바지였던 2022년에 비해 139% 회복률을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기념관 7~8층 리모델링이 새로운 우리 교회 교회학교 부흥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인 대상으로 시설과 공간 명칭 공모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전달한다. **한남**

취재 | 이현지 기자

“아이 기다리며 카페 전전할 일 없겠네요”

교회 내에 실내 놀이터와 다목적 운동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성도들은 어떤 반응일까.



9살과 4살 자녀를 둔
강은애 성도(강서·구로·양천교구)

“예배를 마친 후 아이들이 중간에 남는 시간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든든할 것 같다”라며 “또 자녀를 기다리는 시간이 애매해 주변 카페 등 외부로 전전하기도 했는데, 휴게공간이 생긴다면 자주 애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교회학교 학부모는 “안전 문제 등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잘 마련해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어린 자녀 있는 3040성도들 환영 안전문제도 교회가 신경 써주길



한 교회학교 교사

“예배 준비 공간이 줄어들 것이란 염려가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기념관은 지금도 주일에 유동 인구가 많아 엘리베이터 사용 등에 애로 사항이 많은 만큼, 다목적시설 등이 들어선다면 혼란이 더 야기될 수도 있다”라며 “혼잡 상황을 위한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하지만 교회에 더 많은 아이가 올 수 있다면 환영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세대 / 청년광장



#교회학교 겨울사역 #영락청년 #티키타카

24 가정축복 금요기도회 25 아동부 봄맞이성경학교 28 중등부 겨울수련회
30 고등부 겨울수련회 33 교사교육부 모집, 수료 간증 36 청년부 활동부서
38 선배가 후배들에게

교회학교의 겨울, 봄의 희망을 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던 2월.

다음세대를 자녀로 둔 영락의 가정들과 교회학교에서는
새봄 새 학기를 맞이하는 설렘과 희망의 기도들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수련회와 봄맞이성경학교 그리고
자녀와 함께했던 가정축복 금요기도회에 이르기까지...
2월 한 달을 수놓았던 교회학교 겨울사역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지면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새학기

2월에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다음세대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특별한 금요기도회가 세 번 열렸습니다. 이 기도회는 첫 번째 “가정축복 특별금요기도회”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2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에는 영아부부터 소년부가 지 영락의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날 본당은 은혜를 구하여 나온 가정들로 가득 찼고, 김운성 위임목사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9장 13~15절을 본문으로 ‘좋은 부모, 복된 가정’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맡기고 은혜를 간구하며 양육하는 부모가 진정으로 좋은 부모라며, 이런 부모가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덕중 목사
교육전담
대학부, 교회교육원, 교사교육부



설교가 끝난 후, 이어진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 시간에는 먼저 부모님들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간구했고, 이 기도는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후에는 부목사님들이 금요기도회에 참석한 다음세대들을 축복하며 안수기도했습니다. 기도 카드에 적힌 간절한 간구의 목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참 공급자이시고 인도자임을 믿는 신앙고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두 주간의 기도회에서는 장신대 신현호 교수님과 비손교회 이종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더욱 축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세대로 자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영락의 다음세대와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먼저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만남**

기드ON과 함께하는 FLY아동부

아동부(유년·초등·소년부) 봄맞이성경학교가 2월 24일 (토)에 아동부 어린이 6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베다니 홀 및 베다니광장에서 열렸다. 초등부(부장 오현택 장로)가 주관한 이번 성경학교는 우리 자녀들이 용기 있게 행동하는 어린이로 성장하길 소망하며 '이야기가 있는 뮤지컬 예배'로 성경학교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GO ON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라는 주제의 성서학습을 통해 어

린이들은 말씀의 의미를 익힐 수 있었고, 교회 마당에는 에어바운스, 미니 바이킹 등의 놀이기구가 설치된 가운데 공동체 프로그램 '찾아라 기드온 GO'가 펼쳐졌다. 아동부 산하 각 부서는 다음날 주일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드온과 같은 큰 용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축복했다.

사진 | 원종석 기자



나는 하나님의 용사, 뽀뽀라 뽀뽀!

벌써 봄맞이 성경학교가 다가오네!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내 심장이 쿵쿵쿵!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이야기
난 교회가 너무 좋아,
나는 거기에서 찬양을 재밌게 해야지!

드디어 봄맞이 성경학교 가는 날!
뽀뽀라 뽀뽀! 둥둥 둥둥!
알록달록 풍선들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거기엔 에어바운스, 바이킹 등 재밌는 것들이 많았다.
모두 모두 신나고,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즐거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기드온처럼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을 따를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 강리원!



강리원 어린이
유년1부



봄맞이 성경학교
영락어드벤처_찾아라
기드온 GO_바이킹!



봄맞이 성경학교
영락어드벤처_
찾아라 기드온 GO_
스포츠에어바운스!

지울이가 그렸어요!



나지울 어린이
초등1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



선생님과 찰칵!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즐거운 성경공부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 드립니다"

중등부(부장 차남수 장로)는 2월 23일(금)부터 25일(주일)까지 원주에 있는 피노키오청소년수련원에서 겨울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약 300명의 중등부 학생이 모여 'CELEBRATE: 찬양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주제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걸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어울리는 즐거움을 나누었다.



1 셀러브레이션 2 슈퍼셀러브릿(레크리에이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진심도 없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왜 다 교회를 다니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때 친구들이 '너도 한번 교회 다녀봐라고 권유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져 같이 수련회에 왔다. 친구들도 함께 있으니 더 즐거웠던 것 같다.

덕분에 소울이, 가인이 하고 친해졌다. 저녁 집회 시간이 다가왔다. 처음에 다같이 일어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다. 기도 시간이 되었다. 다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들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셨다. 나는 그 상황이 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대단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근데 여기저기서 기도하다가 우는 친구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어안이 병병했다.

솔직히 금요일 날의 기도는 대충했다. 왜냐하면 이 분위기와 기분은 처음 느껴봤기 때문이다. 그냥 친구하는거 봐서 눈감고 기도하는 척했다. 너무 힘들었다. 서 있는 것도, 눈 뜨지 않는 것도, 집중하기도, 거짓으로 기도하는 것도. 토요일 날이 되었다.



윤성유
중등부 1학년



겨울을 부탁해! 짬뽕 만들기 체험

마찬가지로 금요일처럼 기도를 한다고 했다. 오늘은 좀 다른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두 손을 꼭 쥐고 눈을 감고 기도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이 눈물은 분위기에 떠밀려 기도하는 게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이었다.

나도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동안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 섞인 일조차도 모든 것들을 작게 속삭이며 하나님 예수님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나의 걱정과 고민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잠깐 행복했었던 것 같다. 웬지 이때의 기도는 전혀 힘들지 않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손 꼭 붙잡고 어깨 위에 손 올려주신 분들 모두 나를 위해 기도해주셨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겠다고 했다. 웬지 교회라는 곳은 나의 삶을 변화시켜줄 유일한 희망 아닐까? 싶기도 했다. 이제부터 교회 다니며 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 부디 저의 중학교 생활을 빛나게 해주시고 저의 앞길을 빛나게 하주세요. **안녕**

비로소 알았습니다 주님은 제게 이미 많은 걸 주셨음을...



고등부(부장 서상현 장로)는 지난 2월 2일(금)부터 4일(주일)까지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겨울수련회를 진행했다.

Remember : G(God, Grace, Gift)

141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지만, '정말 나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나? 내가 약속했던 본질을 잊지 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 때문에 더욱 수련회를 통해 주님과 만나고 싶은 마음



최수진
고등부 141대 학생회장

이 컸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수련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평소와 달리 외부장소가 아닌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었는데, 예배실인 드림홀에 들어서자 마치 야외 캠프장 같은 분위기에 잔디와 구름기둥, 불기둥이 세워져 있어서 놀랐습니다. 잔디 위에서 교역자, 선생님, 학생들이 함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고 많이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는 회장이 되어 처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힘들어하던 나

수련회 첫날, 개회 예배 후에 ‘뽕뽕 지구영락살’이라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이끌어주신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예배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애능중앙교회의 양진철 목사님께서 간증과 함께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날의 설교는 ‘Remember: God, Grace, Gift’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집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힘들어했는데, 이날 설교를 듣고 마음이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가진 것들에 집중해보니, 사실 주님은 저에게 과분할 정도로 많은 것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눈물과 콧물을 다 쏟아내며 주님께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 되자 다짐

둘째 날 오전에는 ‘강주심의 광야데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내용을 보내면, 그 사연을 라디오처럼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인조 잔디 위에 누워 마음을 정리하거나, 사연을 보내고 들으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태어난 김에 광야탈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생회 친구들과 열심히 준비한 게임인데,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에서도 양진철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다가 손을

떼면 내가 보일텐데, 눈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그게 평생의 소원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나에게는 아직도 감사해야 할 것이 아주 많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더 힘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집회는 제 마음속 불안감을 해결해준 예배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쓰실까?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잘하고 있나?’ 하는 많은 고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어린 고등학생의 마음도 양진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보듬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나는 민네’라는 찬양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 앞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는 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해답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은혜 되새기며 다시 세상 속으로

수련회 마지막 날인 주일에는 마지막 예배와 어노인팅 예식을 진행하며 수련회 동안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전에는 감사보다 부러움과 욕심으로 살았던 저였지만, 이번에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마음에 남아 있게 해달라고. 앞으로도 세상으로 나아가면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라 : 하나님, 은혜, 선물!

Remember : God, Grace, Gift! **만남**

다음세대와 함께
올라가는 교사교육부(사사기 1:1-2)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2024년 제7기 신입교사 모집

접수

2024.3.17. - 3.31
베다니 광장 부스
온라인 접수 (우측 QR코드)



문의

교역자	권현준	전도사	010.4234.3262
부	감	이민하	안수집사 010.3723.8766
부	감	박경수	안수집사 010.5420.6049
서	기	황현숙	집사 010.8560.3016



신앙의 대(代)가 이어지도록

교사교육부는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할 분들을 교사로 양육하고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교육부에서는 '다음세대와 함께 올라가는 사역'에 동참하실 '71기 신입교사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화가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다음세대 역시 그러한 문화의 현혹에 넘어가 신앙이 흔들리기 쉽기에 복음을 전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학생의 감소율이 일반 초중고 학생 감소율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락교회에서 신앙의 대가 계속 이어지도록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믿음의 본을 보이며 바른 말씀과 신앙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선배로서, 교육부 학생들이 삶 가운데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사랑하는 다음세대들을 떠올리며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함께할 교사,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권현준 전도사
교사교육부



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될 아이들에게는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며, 이미 받은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35)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 위로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20)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세울 차례입니다. 영락교회 신앙의 대가 이어지도록, 다음세대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영락교회에서 모든 성도님의 많은 기도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71기 신입교사 교육과정에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만남**

거만한 다짐 vs 거룩한 양심

지난 1년 동안 신입교사 교육을 받으면서, 부족한 나의 모습에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육 과정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하며, 그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 하겠다” 결심

1년 전, 저는 영락교회에 등록했고,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봉사와 헌신, 선교가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인 것을 알면서도, 너무 지쳐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20살이 되어서야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마치 지난시간을 보상하듯이 하나님을 위한 일에 온 힘을 쏟았어요.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청년부 임원, 찬양 인도자까지 하나님 일이라면 무조건 열심을 쏟았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지혜를 공급해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2년도 안 되어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생활이 힘들어졌고, 저의 신앙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만약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에 맞서거나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니, 그보다는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는 거야”라고 하셨어요.

김예진 성도
청년부 모리아



그래서 저희 세 남매는 영락교회를 찾았고, 너무 지쳐있던 저는 다시 예배에 집중하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너진 저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한 지 3개월 만에, 둘째 동생을 통해 청년부 담당 권사님께서 저에게 70기 신입교사교육에서 교무로 섬길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교사로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교사교육 받으며 옛 봉사열정 되찾아

하지만 놀랍게도 교육 과정을 거치며, 교무로 섬기는 동안 제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주 강의와 조 모임을 통해 이전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던 때가 새록새록 기억났고, 아이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결코 놓치거나 놓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제 삶에서 가장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안날**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찾은 출장, 직장 적응하라 지쳐만 가고...

2023년 청년부 동계수련회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더 많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에 관심이 생겨서 '70기 신입교사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이 교육을 마치면 어느 부서에서나 교사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장 역할을 권면받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수락할 수 있었습니다.

신입교사교육 쉽지 않았던 과정 수료

교사 교육과정은 저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시작했을 때, 저는 새로 시작한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 했고, 자주 야근을 해서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거기에 자주 출장을 가야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교사 교육을 잘 마칠 수 있을지, 조장으로서 잘할 수 있을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불안,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고, 교육 수료식이 가까워졌습니다. 수료식에서 제가 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문득 '어라, 벌써 교육을 다 듣고 수료식을 앞두고 된 건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1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송현근 성도
청년부 꿈꾸는땅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모든 길 열어주셔서

제가 겪었던 직장 생활의 어려움은 이미 해결되어 있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주일 오전 신입교사교육에 참석할 수 있었고, 결국 교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며 늘 응원해 주시는 조원들을 만나서 더 힘을 얻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상황을 풀어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 10:19)*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사람은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입교사 교육을 주님의 은혜로 마쳤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교사로서의 길로 나아갑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낙심하지 않고 오직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만남**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라이프워십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세워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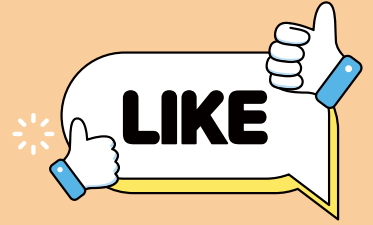
라이프워십은 시대와 함께 걸으며 문화 예술을 예배에 접목해 현대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장해왔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찬양을 강화하고, 모두가 예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드림부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찬양드림부는 예전의 에브라임 찬양팀에서 시작된 청년부 찬양 활동 부서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한 기억이 여러분 중에도 있으실 텐데요, 찬양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꿈꿉니다. 특별히 올해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모이기에 힘쓰자"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락FM



카메라를 도구 삼아 주님 사랑 전합니다

영락FM(From Media)은 카메라를 도구로 주님의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게 사진과 영상으로 생생하게 기록하는 팀입니다. 2024년에도 주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힘차고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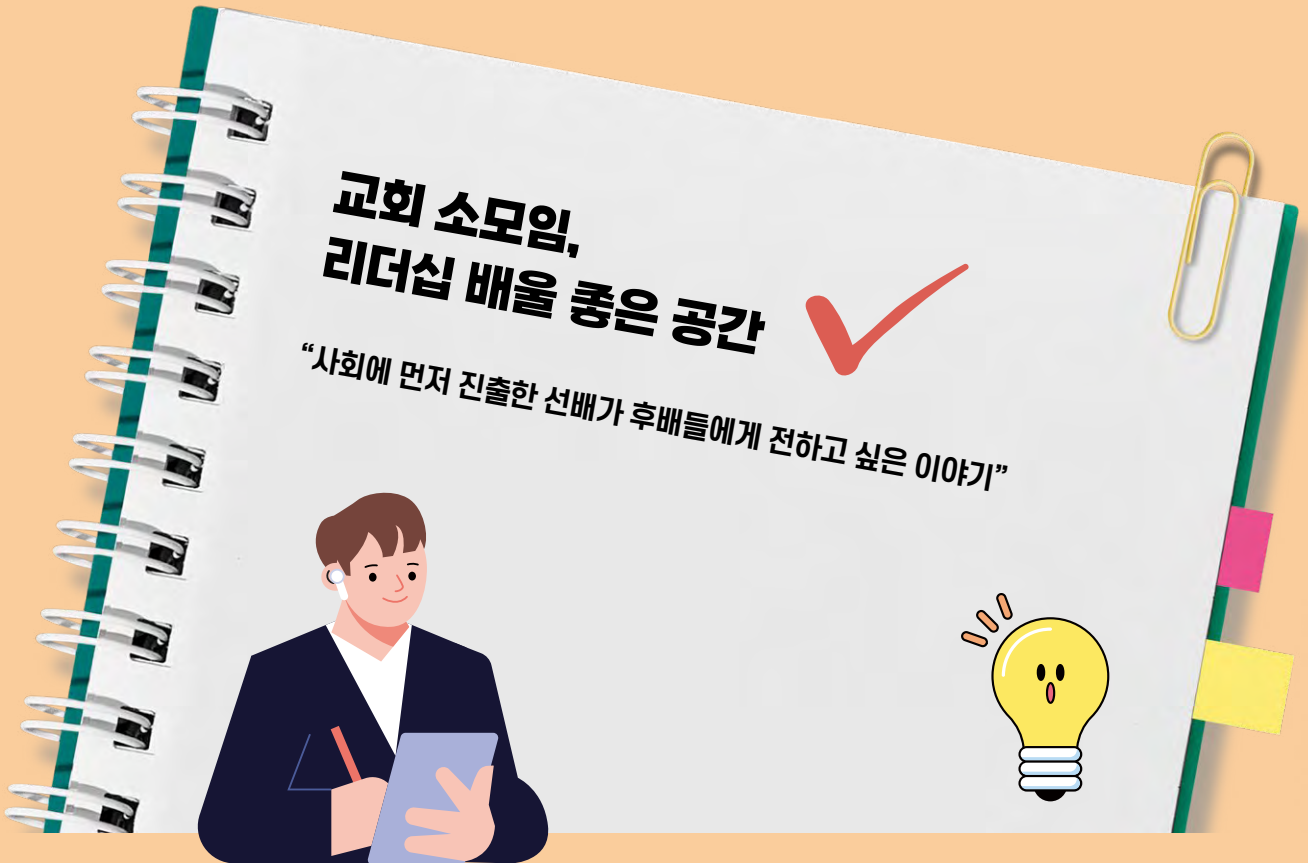


청년의료 선교팀



주신 달란트로 연약한 자 섬깁니다

청년의료선교팀은 제직 부서인 의료선교부와 청년들이 손잡고, 국내외에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각지대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의료사역을 하고, 비의료인들은 의료사역이 주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팀원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문계 고교 나와 주경야독 대학 생활

제 첫 직장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게 처음이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올라온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한 달 넘게 교회를 찾아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학교 근처의 교회를 찾아보려 했지만,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교회를 찾아다니던 중 아버지께서 "영락교회에 가 봐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1998년 9월에 영락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저의 미래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8년 IMF

사태로 아버지 회사도 문을 닫고,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업에 성공해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선택할 때는 국립대와 기숙사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결국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근로 학생으로 대학 생활을 했고, 방학 때는 전공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사회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싶어서 전공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힘겨운 와중에도 신앙의 끈 놓지 않아

비록 환경이 어려웠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길을 잃지 않

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기독교학생회 IVF에 소속된 친구와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임원으로 활동하여 봉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청년부에서도 임원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3학년이 되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학 연수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창업이나 회사 경영보다는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 아라, 우리 집안에도 공무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생각해서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을 얻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실기 시험도 준비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며 교육대학원 노크...교직 결인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그해 공무원 시험에서는 떨어졌습니다. 이후 비슷한 분야를 찾다가 철도에 관심이 생겨 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철도전문대학원에 들어가 실험실 생활을 하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실험실 생활은 대부분의 공학도와 비슷했습니다. 공부하다 잠들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등의 경험을 했습니다. 저녁엔 친구들과 축구를 즐기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석사를 마친 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회사 경영을 배웠는데,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교육대학원에 다니며 교육학 석사를 마쳤고, 회사를 그만 두고 임용고시에 도전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는 일상을 거쳐 결국 기간제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32살에 교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2013년에는 주님이 예비해 주신 사립학교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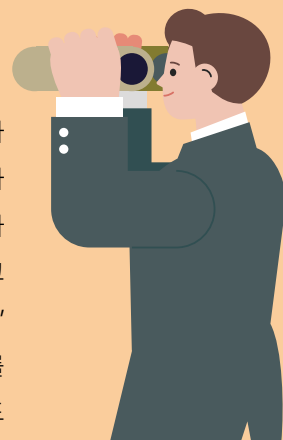
다른 의견 경청, 조율...직장과 비웃

교회의 소모임은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하며 찬양대, 학생회 회계, 총무 등에서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인내심과 봉사 정신은 직장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교회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협력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소모임에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에서는 준비할 것도 많고, 맡은 업무도 많습니다. 특히 청년부에서 회계, 교무 업무, 성경공부 리더를 맡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인터넷과 SNS 발전으로 소통 채널이 많아졌지만, 직접 만나는 식탁 교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청년 시절의 또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직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는 동료들을 보며, 그들이 왜 좋은 직업을 그만두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떠나는지 궁금 생각하곤 합니다. 중간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 청년들이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야근 없이 퇴근할 수 있는 직장, 지시받는 일이 적은 직장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어도 이직하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주로 급여, 워라벨, 상하관계 문화, 점점 줄어





드는 연금 등이라고 합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직장이라도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적성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질과 잘 맞는 일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얼마나 이른 시기에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진로를 설명할 때도 소질과 적성을 강조합니다. 35살까지는 원하는 걸 모두 해봐도 좋지만, 그 시기를 넘기지 않는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중년이 되기 전까지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전공을 살리면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다가 여러 경험 끝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 경험은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담당하는 교사로서 큰 자산이 되어,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졌습니다.

‘근면과 성실, 그리고 그로 인한 기회’

제가 교사로 처음 시작했을 때, 교장 선생님과 차를 마시면서 “남들보다 5분 일찍 출근하는게 좋다”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5분 일찍이 무슨 차이를 만들까 싶었지만, 교장 선생님이 항상 6시 20분에 출근하시는 걸 보고, 저도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을 시작하고, 그날 해야 할 일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코인이나 주식으로 ‘한탕’을 꿈꾸고 있지만, 돈

은 그렇게 쉽게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자격증이나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 요즘은 정년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발명과 같은 특별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회에서 학생들과 함께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우수기능인으로 선정되었고,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심사위원, 교육부 장관 표창, 교육감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국무총리 표창 등 많은 표창을 받았습니다.

‘창대한 나중’의 키워드, 소통과 기도

저는 후배들에게 어디서든 배울거리가 있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배운 것은 언젠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 경험을 통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도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길 기도합니다. **만남**



이덕주 안수집사
고양·파주교구
의료선교부 차장
세명컴퓨터고등학교 교사



땅끝까지 이르러



해외선교 특집

42 의료선교부 네팔 해외의료선교

46 대학부 인도네시아 해외선교

그리스도의 대사를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사(Ambassador of Christ)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 네팔 카트만두와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돌아온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있습니다.

의술(醫術)을 넘어 인술(仁術)을 펼쳤던 의료선교부 네팔 선교팀과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온 대학부 인도네시아 선교팀의
'영락선교행진'을 소개합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임대현 안수집사
성남·분당교구
의료선교부 차장
인하대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의료선교부(부장 최성준 장로)는 지난 설 연휴였던 2월 8일부터 12일까지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어넌뚜쿠시(Ananth Khusi) 교회에서 단기 의료선교를 펼쳤습니다. 이 교회는 레크미 쉬레스타(Rekmi Shresthma) 목사님이 시무하고 계신 곳이에요. 목사님은 2004년 인도 델리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2007년부터 영락교회 외국인 예배부에서 외국인 쉼터와 네팔예배를 섬겼습니다. 2008년에는 우샤 쉬레스타(Usha Shrestha) 사모와 결혼하였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M.DIV도 취득했습니다. 2013년에는 네팔로 돌아가 선교사



1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는 어린이 2 진료를 기다리는 네팔 사람들
3 치과 진료 4 돋보기 사역 중인 선교팀원



역을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어넌떠쿠시 교회를 새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네팔 대지진으로 교회가 손상되었고, 2019년에 교회를 다시 지어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2019년부터 영락교회 네트워크 선교사가 되어 영락교회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토요일이 주말 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오전에 어넌떠쿠시교회에서 네팔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용준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고, 우샤 사모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찬양대의 노원일 지휘자님 지휘 아래 모두 네팔어로 특송을 했습니다.

많은 네팔 사람들이 진료를 기다렸어요. 사람들은 내과, 정형

외과, 외과, 이비인후과,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외과에서는 수술 장면도 있었고, 어린이들은 이비인후과에서. 여성들은 초음파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했습니다. 약사님들은 약을 조제하는데 바빴고, 일부 환자들은 탈수와 영양불 균형 치료를 위해 수액주사를 맞았습니다. 돋보기 사역을 통해 글씨를 잘 볼 수 없는 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한국 문화의 인기를 활용, 네팔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K-컬처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라리구란 스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K-댄스로 몸풀기, 팀으로 애드벌룬 이동시키기, 큰 줄넘기, 신발 날리기, 제기차기와 한복 입고 사진 찍기 같은 다양한 놀이와 유희 등 한국의 전통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어묵꼬치, 팝콘, 떡볶이, 호떡, 주



1 K-컬처 이벤트 음식 준비로 바쁜 주방

2 3 네팔 어린이를 위한 사역
(팝콘 사역과 제기 차기 체험)

4 모든 선교팀원이 네팔어로 특송(지휘 노원일)

5 약을 타기 위하여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일일이 기도해주는 박용준 목사님

6 감기와 과로로 지치신 레크미 목사님에게
수액주사를 놓고 있는 김양수 권사님



먹방 등 한국 음식 체험으로 네팔 학생들의 큰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둘째 날 오후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함께 도와주셔서 문화 사역이 더욱 신나게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K-컬처 이벤트를 기대하며 기다렸고, 행사 시작 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음식 준비로 바쁜 주방에서는 네팔 자원봉사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참가자들에게는 공책과 펜도 나눠주었습니다. 한복 체험은 특히 인기가 많았고, 학생들은 차례를 기다리며 질서 있게 줄을 섰

습니다. 라리구란스학교의 힌두교 선생님들과 통역자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단기 해외의료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등으로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샤 사모님은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언더커키교회와 레크미 목사님과 우샤 사모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4



5



6

이번 네팔 카트만두에서의 단기 의료선교를 통해, 힌두교가 주류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으신 신앙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어넌떠쿠시교회와 레크미 쉬레스타 목사님, 우샤 쉬레스타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료를 마친 다음 날 점심에 레크미 목사님의 기뻐하는 목소리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동네 사람 십여 명이 진료를 받으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끝났다고 잘 설명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만남**



발리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다



대학부(부장 김종태 장로)에서는 지난 2월 12일(월) ~ 17일(토), 인도네시아 발리섬 바둥(Badung)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 왔습니다. 교역자 2명, 지도위원 4명, 벤틀 17명으로 구성된 23명의 팀원은 4박 6일 동안 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선교의 맘을 흘리고 왔습니다.

먼저 임마누엘 초등학교에 모여 강용훈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선교



지 현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임마누엘 초등학교의 교사들과 만나 성경학교 강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 간 진행될 성경학교를 위해 서로 소통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첫날의 사역은 등불신학교에서의 집회였습니다. 신학생들의 찬양으로 시작된 집회에서, 선교팀은 지금껏 땀 흘려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출애굽하기까지의 스토리를 녹인 공연이었습니다. 이어 방덕중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이어졌고, 신학생들과 교제하는 기쁨의 시간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사진 1)

둘째 날에는 비전하우스라는 보육원에서의 사역이 진행됐습

니다. 은퇴한 한국인 목사님께서 스무 명의 어린이, 학생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서로가 준비한 공연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손을 뻗어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사진 2)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임마누엘 초등학교에서 300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의 우렁찬 찬양과 함께 선교팀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신발을 던져 모세의 떨기나무에 도착하고, 열 가지 재앙이 그려진 카드의 짝을 맞추며, 방석을 이용해 홍해를 건너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찬양에 맞춰 율동을 연습하고 함께 율동하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사진 3, 4) **만남**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백예빈 대학부 웰컴마을

제 인생 첫 번째 선교를 앞두고 있었어요. 선교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쩌나,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마음이 복잡했죠.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사랑은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그렇게 해서 등불신학교, 비전하우스 보육원, 임마누엘 초등학교 세 곳에서 제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모두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제가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어요.

눈 맞추고 이름 불러주었을 뿐인데...

특히, 비전하우스 보육원에서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고 강했어요. 처음 보육원에 들어섰을 때, 많은 친구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환히 웃으며 저희를 맞아줬어요. 그 덕분에 떨리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선교팀은 출애굽 이야기를 연극으로 보여주고, 같이 밥도 먹으며, 농구, 축구, 손가락 게임 등을 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나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이름을 부르는 것 말고는 소통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더 가까이기 위해 이름을 빨리 외우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외운다는 적은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요. 세 시간 동안 축구하면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이름을 불러주지만 했는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져서 아픈지, 지친 건지, 목마른 건지, 화가 난 건지 그저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맞추면 알 수 있었어요.

마음 활짝 열어준 아이들에 깊은 감동

아이들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아이들도 저를 '누나'라고 부르며 공을 달라고 하고, 아이스크림 껍질을 까달라고도 했습니다. 잔디밭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장난치는 아이들도 생겼어요. 대화가 없어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느끼고 소통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덥고 습한 날씨에도 아이들과 세 시간을 지치지 않고 땀 수 있는 체력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는 왜 지치지 않니?”라는 물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시기 때문임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사랑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또한 제가 노력해서 사랑을 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느끼며 알게 해주셨습니다.



마음 착한 안드레! 잘 지내지?

벌써 내 친구 '안드레'가 그리웁니다. 축구 시합을 할 때 저를 도와주며 동생들을 잘 챙기던 마음 착한 친구였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안드레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안드레는 "우주비행사"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서 하나님께서 안드레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신 곳으로 이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사랑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느꼈습니다. 대학 3학년을 앞두고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었지만, 선교는 모든 걱정을 내려두고 사랑만을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받은 사랑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따뜻하게 챙겨준 선교팀의 언니 오빠들,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을 위한 기도, 얼마나 소중한지...

조인서 대학부 웰컴마을

저는 이번 2024년 대학부 아포스톨로스 단기 선교사역을 통해 신앙적인 메시지와 달란트를 얻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면서, 저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대학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사랑과 기도로 가득 찼어요!

인도네시아 바둥지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둘째 날 비전하우스 보육원에서 있었던 청년 20명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바둥지역에서 4박 6일 동안 있었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포스톨로스(사도)로 살아간다는 것

박효빈 대학부 모세마을

선교를 떠나기 전, 여러 가지로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었지만, 스스로는 이게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부끄럽고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인도네시아로 향했습니다.

무시와 차별...발리에서 본 하나님의 마음

선교지 도착 후 선교사님께서 알려주신 인도네시아 발리의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인 가운데, 발리는 힌두교인이 많아서 그나마 무슬림 세력이 강한 곳보다 자유로웠지만, 기독교인은 극소수여서, 무시와 차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들으며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사랑하세요?'라는 의문이 들며, 선교의 목적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서는 그럼에도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인과 다음세대에 씨앗을 뿌리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미 제 귀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고 선교에 회의감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신학교에 방문해 함께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전히 일한다. 내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당신은 찬양받기



왼쪽에서 두 번째가 필자

합당합니다. 당신이 이 땅의 왕이시니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높임 받아 주세요'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돌아보니 선교 과정에서 느꼈던 부족함과 걱정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에,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이 영광만이 드러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라는 뜻을 지닌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처럼, 우리가 사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올바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매 순간 느끼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마음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젠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정현주 대학부 모세마을

작년 8월,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궁금증이 의구심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향해 반항의 마음을 품었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웃기지만, 그때 그 결심이 무척 단단했다. 그러나 3년의 세월이 흘러, 하나님은 지난 여름수련회를 통해 다시 나를 부르셨고, 내 마음을 만져주셨다. 그때의 감격과 열정으로 나는 망설임 없이 선교팀에 이름을 올렸다.



"하나님 전하는 사랑의 통로 되자" 간구

선교를 준비하며 우리는 간구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닿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아포스톨로스 선교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후,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고자 했다.

발리에 도착한 첫날, 임마누엘 초등학교로 향했다. 학교를 바라보며 나는 '이곳이 바로 그곳이구나. 여기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굳게 먹은 다짐과 기도를 잊었다. 아이들이 우리를 향해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소를 보여주고, 안아주고, 엄청난 사랑을 주었다. 우리는 그저 그곳에 간 것뿐인데, 힘껏 반겨준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게 되었다. '3년의 세월을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셨겠구나,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반기셨겠구나' 깨달았다. 하나님은 4박 6일의 선교 여정 내내 비전 하우스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 그리고 등불신학교 학우들과 춤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셨다.

오히려 아이들 통해 하나님 사랑 듬뿍 받아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하나님 사랑의 통로 역할'이 아닌,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랑으로 여태껏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다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셨다. 앞으로 내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보여주셨다. 아포스톨로스 선교팀의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는 끝났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만남**

‘거룩한 기적 함께하자’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예수님 만난 소중한 경험 3040 지친 영혼과 나눌 것

3040(부부선교회, 청년선교회, 교구3040)과 청년부(신혼부부) 부서를 섬기게 된 전재량 목사입니다. 인생의 마디에는 특별히 초심으로 돌아가 사명을 기억하고 힘을 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2024년이 그러한 인생의 마디입니다. 영락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서 사역을 마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영락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는 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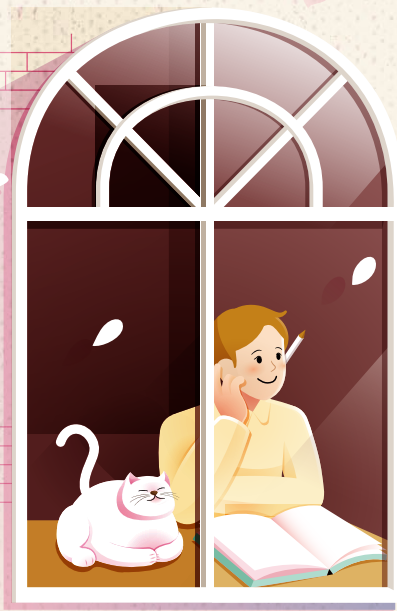
목회자의 길 권면받은 공학도 3년의 고민

처음 저를 목회자로 부르심은 소소하다면 소소하고 화려하다면 화려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교회 대학부 목사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추천하셨을 당시 저는 큰 회사에 들어가 성공하길 꿈꾸는 공학도였습니다. 목사님의 권면에 기도해보겠다고 답하긴 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아니지요? 목회는 아니지요?’ 하며 결눈질하듯 하나님께 기도하는 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저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목말라 우물가를 찾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진정 생명의 근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더 유하시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량아, 네가 먼저 사마리아 여인으로 내 앞에 서고 변화되어 사람들에게 나를 전할 때, 그들이 나를 받아들인다면 그 인생이 정말 복되지 않겠니?”



전재량 목사
3040세대
청년부



사마리아 여인처럼...말씀으로 응답주셨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다니던 대학교 주변의 술집 가득한 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로 뻘뻘하게 울려 퍼지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에서 '이곳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기적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지 않을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목회자의 길로 나아가기로 마음먹고 신학대학원 입학を 준비했습니다.

젊은이들 '생수의 강'으로 인도 소명 다져

3040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걱정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처음 주셨던 부르심을 떠오르게 하시며 다시 한번 꿈꾸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의 3040세대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지만, 복음이 없는 현실과 교회 문제로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몰라 끊임없이 목말랐던 제 삶에 찾아오신, 진짜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을 경험한 그 소중한 만남을 3040세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를 공유하면서 모두가 함께 풍성해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행복은 없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호수에 돌을 던져 생겨난 물결처럼 큰 파동을 만들어 영락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행복한 부흥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안남**

소통과 일치의 성령님 안에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먼저, 그리고 함께 올라가는 남선교회

2월 3일(토) 베다니홀에서 남선교회 연합 신년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도회는 제2, 3, 4남선교회가 함께한 것으로, 우리가 꿈꾸고 고민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 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번 신년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 심으로 힘을 얻고 재도약하여 ‘먼저, 그리고 함께 올라 가는 남선교회’가 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각 지체들의 마음을 모으는 말씀과 기도,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통해 함께 연합하여 부흥하고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 뒀습니다.

기도회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을 내어놓고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기도 제 목을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민하 안수집사
강북·도봉교구
제2남선교회 수석부회장

D-5: 신년기도회를 위한 기도

D-4: 말씀을 전하시는 김운성 위임목사님을 위한 기도

D-3: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인도하시는 송정미 교수님을 위한 기도

D-2: 남선교회 지회장들과 회원들을 위한 기도

D-1: 2024년 남선교회 임원들과 사역을 위한 기도

우리가 신년기도회를 준비하며, 성령님은 제2·3·4남선 교회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 말씀과 기도, 찬양, 간증을 통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소통과 일치의 성령님(사도행전 2:5~13)’ 제하의 말씀을 전하신 김운성 위임목사님은 우리 남선교회 회 원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어 어디에서든 섬기고 선교 하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소통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이제 우리 남선 교회를 통해 영락교회에도 부흥과 회복,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부 김진우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사랑 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아름다운 교회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와 결단의 귀한 시간이 되었 습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교수님과 함께한 찬양과 간증의 시간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선교 현장이든 일상생활이든 매 순간 선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연합하는 시간을 통해 부흥과 회복,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에 선 우리는 모두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 되어, 힘차게 올라갈 남선교회를 기대하며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섬기는 지회장님들을 중심으로 소그룹으로 모여 각자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4년에는 이런 지회별 소그룹모임이 더 활성화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을 풍성히 나누며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제2·3·4남선교회가 연합하여 준비한 신년기도회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시작하여 2024년에 우리가 경험할 부흥과 회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다시 확인하고,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사

랑이 넘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2남선교회는 ‘먼저 올라가는 2남선교회’ 표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다시 일어나 올라가는 친밀한 영적 공동체
- 가족운동회 같은 활동으로 서로를 돕고 섬기는 섬김 공동체
- 매주 화요일 저녁, 소그룹으로 감동과 눈물을 나누는 친구 공동체
-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 선교 사역을 통해 성장하는 선교 공동체

3남선교회와 4남선교회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님께서도 남선교회의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선교회 연합 신년기도회로 시작한 2024년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되어 소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기뻐하여, 성도들과 하나님께 모두 인정받는 남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비만 탈출? ... No Pain, No Gai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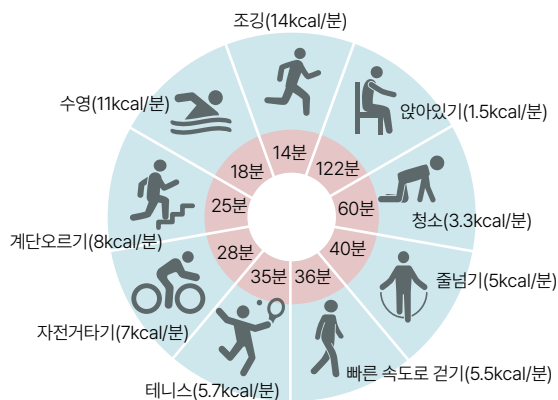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

은행의 잔액은 많을수록 좋으나 체내의 에너지 출납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신체활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필요량 이상으로 에너지만 계속 공급받으면,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체내에 축적되어 살이 찌고 비만(표준 체중의 20% 초과 또는 표준 체지방량 이상)이 된다. 비만이 외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성질환 및 주요 사망원인이 되는 질환(심혈관질환과 일부 암)의 발생 요인이 되기에 현재 비만하다면 관리를 통해 치료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은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경고했다.

다이어트의 우선순위는?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운동보다는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단기간의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나, 식이 조절만으로는 근육량과 기초대사율의 감소를 억제하는



200kcal를 소비하려면?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식이조절과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권고한다.

설탕 시럽 바른 달콤한 맛에 서너 개도 쉽게 먹게 되는 도넛 한 개는 약 200kcal의 열량을 제공한다. <그림>은 일반 성인(체중 60~70kg)이 200kcal를 소비하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계단 오르기를 25분가량 계속해야 하고 줄넘기를 약 40분간 해야 한다. 이렇듯 순식간에 200kcal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 200kcal를 에너지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단단히 마음 먹고 계단을 오르거나 줄넘기를 해야 한다.



김은경 권사
강남교구
강릉원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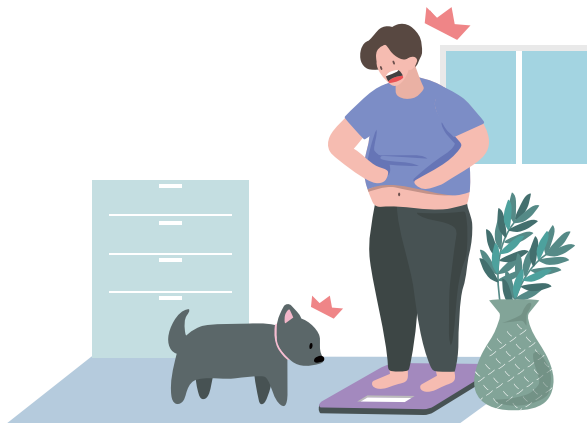
행동수정요법으로 문제 식습관 고칠 수 있어

고도비만의 경우는 약물요법이나 수술이 필요한 예도 있으나 대개는 비약물요법 즉 식사요법, 운동요법 및 행

동수정요법을 통해 치료한다. 체중 감량(다이어트)을 위한 기본 원칙(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힘들어 '비만'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많이 먹는 문제 행동을 '자기통제(self control)'하여 수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행동수정요법이다. 비만에 이르게 하는 자신의 식습관을 고치려면 문제행동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므로 식사 일지를 기록하여 자신의 문제행동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사 일지에 기록할 내용은 먹은 시간, 먹은 음식과 음료의 종류, 먹은 양, 얼마나 빨리 먹었는지, 먹은 장소, 함께 먹은 사람, 먹으면서 무엇을 했는지, 먹는 자세(누워서, 앉아서, 걸으면서 등), 음식을 먹었을 때의 기분이나 주위 환경 등이다.

자신의 과식 이유나 문제행동을 확인했다면, 그 문제행동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예시>를 참고하여, 뼈를 깎는 심정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만 탈출, 다이어트는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다. **만남**



다음과 같이 바꾸어보세요

<예시>문제행동 (구체적인 개선방법(번호))

A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는다 (1, 2, 4, 6, 7, 13)
B	분노·우울·불안·좌절·외로움 등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마구 먹는다 (1, 4, 5, 7, 11, 14)
C	음식을 남기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여 남긴 것을 모두 먹는다 (1, 8, 12, 15, 16, 17, 18)
D	하루 종일 먹는다 (2, 4, 6, 7, 12, 13)
E	배가 많이 고프면 때는 급히 먹는다 (2, 5, 7, 8, 11)
F	아침이나 점심을 굶은 후, 저녁이나 밤늦게 많이 먹는다 (2, 8)
G	매끼의 1인 분량이 너무 많다 (3, 9, 10, 11)
H	포만감이 들어도, 그릇에 담긴 것을 남기지 않고 먹는다 (8, 9, 10, 15, 16, 17)

문제행동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법들

1	무엇이든 먹기 전에 정말로 먹고 싶은지 물어본다
2	식사 및 간식 시간을 계획하고 지킨다
3	1인 분량의 무게를 달아 본다
4	식사 시간 외에 습관적으로 음식을 먹는 대신, 책 읽기나 운동 등으로 관심을 돌린다
5	식욕을 자극하는 식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6	열량이 높은 기호식품 대신, 열량이 낮은 식품이나 음료수로 대체한다
7	식사 전에 물을 한 컵 이상 마신다
8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
9	1인 분량을 작은 접시에 담아 시각적으로 많아 보이는 효과를 낸다
10	제공된 음식을 반으로 나누어 두 끼 식사가 되도록 한다
11	간식으로는 과일이나 채소 같은 저열량 식품을 먹는다
12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13	배가 고프면 즉시 먹지 않고, 20분 후에 먹는다
14	기분을 전환하는 운동을 한다
15	음식을 한꺼번에 식탁에 많이 올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제공한다
16	식사를 끝내면 서둘러 식탁을 정돈하고 남은 음식을 치워서 더 이상 먹지 않도록 한다
17	식사 후에는 식탁에서 얼른 일어난다
18	남은 음식을 서둘러 치우고 즉시 냉장고에 보관한다

2024 제직부흥회 “모세와 함께한 아론과 훌과 같은 제직”

목양부

우리 교회 제직들의 사명감 고취와 영성 수련을 위한 제직부흥회가 목양부(부장 정경섭 장로) 주관으로 2월 18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열렸다. 목양부 박지운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황명한 목사(수서교회)는 ‘함께 싸워 얻은 승리(출애굽기 17:8~14)’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아론과 훌과 같은 제직이 되어 각자 맡은 역할에 충성함으로써 교회 사역이 원만히 진행될 때 모세가 아말렉을 진멸한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는 승리가 반드시 온다”고 역설하며

“늘 기도에 힘쓰고 영으로 듣는 제직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당에 지정된 교구별 좌석을 가득 메운 18개 교구 855명의



제직들은 직분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며 교회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갈 것을 함께 결단했다.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올해 첫 전교인 성경통독사경회

목양부

전교인 성경통독 사경회가 지난 2월 19일(월)부터 23일(토)까지 서대문-은평교구(7교구) 주관으로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열렸다. 140여 명의 성도가 참여한 가운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번 통독사경회는 김진우 목사의 인도로 말씀 본연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통독사경회 기간 7교구 여전도회 지회원들이 섬김의 봉사를 펼쳐주었고, 어린 자녀들도 함께 스태프로 봉사함으로써 다음세대도 함께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올해 첫 통독사경회였던 이번 사경회에서 성도들은 찬양과 기도, 말씀 통독을 통해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다짐했다.



신임권사 임직식 및 권사헌신예배… 신임권사 57명 임직

권사회

권사헌신예배가 2월 25일(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열렸다. 신임권사 임직식을 겸해 드린 이날 헌신예배는 송경심 권사(권사회 회장) 인도로 김혜옥 권사(부회장)의 기도, 성경 봉독(요한복음 21:20~23), 갈릴리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박지운 목사가 설교 말씀을 전했다. 박지운 목사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신임권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오직 하

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자로 살아가길 권면했다. 이어 신임권사들은 선교를 위해 힘쓰며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할 것을 서약했고, 김운성 위임목사는 신임권사 57명에게 임직을 선포했다. 송경심 권사회장은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권사회가



되자"고 환영사를 전했고, 신임권사를 대표해 권정임 권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직분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4 상반기 공개강좌 …“치유의 공동체, 회복으로 올라가라!”

상담부

상담부(부장 차영균 장로)가 주최한 전교인 대상 공개강좌가 2월 18일 오후 1시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장진대 이상억 교수(목회상담학)는 '치유의 공동체, 회복으로 올라가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의 펼쳤다. 이 교수는 "우리를 치유케 하실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 받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회복의 자리로 함께 올라가자"고 당부했다. 강좌에 참여한 성도들은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현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 내는 것"이라는 메시지에 공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번 공개강좌는 자신의 눈물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상담자로 살아가기를 함께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영락청소년오케스트라, 설 명절 따뜻한 위로 전해

교육부

교육부(부장 박홍준 장로) 산하 영락 청소년오케스트라(음악감독 김지미, 지휘자 임수현)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1일(목) 중로종합복지관에서 주최한 어르신 설날 잔치 '새해가 왔어용' 행



사에서 연주를 펼쳤다. 코로나 이후 처음 가진 외부연주였던 이번 행사에서 소년부 2명, 초등부 6명, 중등부 3명, 고등부 3명으로 구성된 14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바이올린과 첼로, 클라리넷 연주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플룻, 오보에 연주자들도 함께 구성된 청소년오케스트라는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학기별 발표회 및 감사음악회, 가정의 달 기념음악회 등을 통해 음악적 기량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청소년오케스트라는 3월 2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의 특순을 통해 찬양의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다.

2024년 겨울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 수련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2024년 겨울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 수련'이 2월 18일(주일)부터 23일(금)까지 영락수련원에서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렸다. 전국에서 다양한 교단의 목회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영성수련에서 영성 강의를 맡은 장신대 유해룡 명예교수(영성학)는 '이나시오의 영적 분별 규칙들과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영적 경험과 신앙 체험을 자세히 정리해 설명해주었고, 성서 강의를 한 허신욱 목사(영동교회)는 신명기를 통해 참된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한 모세의 삶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회자로서 소명 회복과 결단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철신 원로목사는 '목표 집중'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김운성 위임목사는 '친민에서 신민으로'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 목회

자들의 영적 회복과 갱신을 도왔다. 이번 영성 수련을 마친 목회자들은 영적 회복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의미와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다음 포이메네스 영성 수련은 오는 5월 13~15일로 예정된 '2024년 봄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 수련'이다.



기독교사대회… 학원선교의 주역으로 세워지며

선교부 학원선교

2024 기독교사대회가 선교부(부장 김재완 장로) 학원선교팀 주관으로 2월 22일(목)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열렸다. '함께 올라가는 기독교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영락학원

3개교(영락중, 영락고, 영락의료과학교), 대광학원 3개교(대광초, 대광중, 대광고), 보성학원 2개교(보성여중, 보성여고) 교사와 교직원 330명이 참여했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는 '하나님

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3개 학교법인의 학교장 인사, 학교별 소개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오찬 후 진행된 2부 프로그램에서는 윤광서 목사(영화교회)의 특강을 통해 기독교사이자 학원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고취했고, 레크리에이션 강사와 함께하는 화합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영락고등학교 올해 대입에서 좋은 결실 거둬’

영락학원

영락교회 학원 선교의 최전선에 있는 영락고등학교(교장 김성식)가 올해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관악구에 소재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인 영락고등학교는 2024 대입에서 의대 3명, 한의대 1명, 서울대 2명, 고려대 4명, 연세대 2명 등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56명이 합격(중복 합격 포함)한 것을 비롯 4년제 대학 81명, 전문대 20명이 합격했습니다. 영락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진로, 진학 지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경천애인의 인재로 키워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땀 흘려 얻은 결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영락고등학교



교는 진학뿐 아니라 올바른 신앙 교육과 인성 교육, 예술적 소양 및 창의성 교육에도 전력하여, 다음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과 문화예술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사회복지재단(이사장 박홍준)과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은 지난 2월 14일(수)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지역 사회복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하남문화재단 관계자는 “하남시 문화복지 증진과 노인복지 시설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회를 진행하고 싶다”며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영락경로원 잔디광장에서 ‘숲속 음악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전해 왔다. 이번 협약은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추구하고 하남시 지역문화를 선도하며 활발하게 교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영락 소그룹

영락교회 소그룹은 성도들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전인적 신앙성장을 이루고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꿈꿉니다.



주일 소그룹 안내 (상반기3~6월/하반기9~12월)

내용: 주일 설교 말씀을 주제로 한 소그룹 나눔
일시: 1부오전 9:00 2부오후 1:30
장소: 선교관 지하2층 제2식당



토요 소그룹 안내 (상반기3~6월/하반기9~12월)

내용: 토요새벽기도회 말씀을 주제로 한 소그룹 나눔
일시: 매월 셋째 주 토요새벽기도회 후 (3월은 3/30일 예정)
장소: 선교관 지하2층 제2식당

문의 및 신청: 소그룹전담부 담당 전도사☎ 02-2280-0307)

제43회 정기총회 개최... 15명에 한경직 장학증서 수여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사단법인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제43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14일(수) 오전 11시 40분 선교관에서 열렸다. 1부 경건회에서는 손동호 이사의 기도에 이어 이사장 김운성 목사가 말씀(마태복음 22:36-40, '사랑으로 살아낸 삶')을 전했다. 2부 회무 처리에서는 2023년도 사업보고와 2024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결산(안)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됐으며 2024년 '한경직상' 진행 현황과 '한경직 해외 유학 장학생' 선발 및 신설된 '송실대 한경직 목사 기념장학금'에 관한 보고도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경직 장학금'의 의미를 알리고 장학생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고자 올해 처음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장학금은 총 15명의 학생에게 약 1억



3천만 원이 1년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한편 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에서 드렸던 한경직 목사 기념예식을 올해는 4월 19일(금) 영락동산 묘역에서 성묘예배로 드릴 예정이다.

김용수 은퇴장로 별세

김용수 은퇴장로가 지난 2월 12일(월)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1936년 충북 보은에서 출생한 고인은 1970년대부터 고등부 교사와 구역장, 상담부 봉사를 통해 수년간 헌신했으며 1989년 12월 집사 안수를 받았다. 집사 안수 후에는 고등부 부감, 청년부 부감, 상례부 차장, 목양부 차장을 맡았고, 2002년 12월 제33회 시무장로로 장립됐다. 시무장로로 섬기는 동안 상담부장, 영락공원요원 이사, 영락기도원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는 은퇴장로로 교회공동체

를 섬겼다. 교회장으로 드러진 고인의 장례예식은 2월 15일(목) 오전 8시 본당에서 김운성 위임목사의 집례로 강동-송파교구 조가대의 찬양, 김운성 목사의 말씀, 차영균 장로의



약력 소개, 이명호 은퇴장로의 조사,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하관예식은 같은날 오후 2시 장지인 영락동산에서 박성은 목사 집례로 드러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갑연 은퇴권사와 2남 5녀를 두었다.





구원의 영원 담아... 두 팔 벌린 예수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상을 꼽는다면 '구세주' 또는 '구원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리우 예수상을 뽑을 수 있습니다. 높이 38m 가로 30m 크기로, 리우시의 코파카바나 해변을 마주 보는 코르코바도(Corcovado) 산 정상 704m에 자리잡고 있어 리우 시내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서면 리우 시내는 물론 코파카바나 해변과 대서양 앞바다에 원뿔형으로 솟아있는 슈거로프,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로 꼽히는 리우항이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옵니다.

리우 예수상은 브라질 독립 100주년인 1922년에 기획돼 9년 만인 1931년 10월 12일 완성되었는데, 브라질인 에이토르 다 시우바 코스타가 설계를 담당하고 프랑스 건축가 폴 란도프스키가 제작했습니다.

리우 예수상은 2007년 7월 중국의 만리장성, 요르단의 고대도시 페트라, 페루의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 멕시코 치첸이트사의 마야 유적지, 로마의 콜로세움, 인도의 타지마할 등과 함께 세계 신(新)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브라질 정부는 2009년 12월에 리우 예수상을 역사예술유적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리우 예수상은 사랑과 평화, 구원의 상징인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리우를 굽어보는 모습으로, 어려움에 부딪친 리우와 브라질 주민들에 대한 구원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본 예수상은 구원자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예수상으로, 지금은 연 약 200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만남**

글 정재원 편집위원

Christ the Redeemer

1931, 폴 란도프스키
(Paul Landowski)

2024년 3월호 통권 601호

발행 2024. 03. 0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독사 강승훈 / 편집인 김태영 / 편집장 권오란

편집위원 이형일 조지형 소남호 박선이 정용성 김성문 김윤영 류정현 안하윤 정재원

기자 김경옥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사진기자 원종석 유승헌 /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영락시어터 3월 상영 영화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이번달 영화 선정 기준은 부활절이 있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선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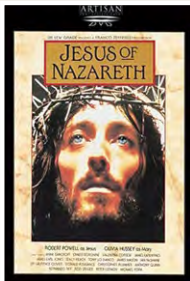


라이온 킹 (The Lion King, 1994) ALL 89분

3일

감독: 로저 알러스, 롭 민코프 출연: 매튜 브로데릭, 제레미 아이언스

어린 사자 심바는 암사자 날라와 놀며 아버지 무파사 왕에게 자연의 법칙을 배운다. 하지만 평화로운 왕국에 어두운 그림자가 깔리고, 왕의 동생 스카가 반역 음모를 꾸민다. 스카는 하이에나들과 결탁한 뒤, 어린 심바를 이용해 왕을 살해하고 그 죄를 뒤집어씌운다. 자신이 부왕을 살해한 것으로 안 심바는 괴로워하며 하이에나의 추격을 피해 달아난다. 사막에서 죽을 뻔하던 심바는 자신을 구해준 티몬과 품바와 함께 살며 자신의 과거와 고향을 잊으려 한다. 세월이 흘러 어른 사자로 성장한 심바는 옛 친구 날라를 만나 자기 고향이 스카와 하이에나의 폭정으로 파괴되어 황무지로 변해간다는 소식을 듣는다. 하지만 심바는 옛날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죄책감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한다. 그때 라피카라는 원숭이가 나타나 심바를 이끈다. 심바는 자기 내면에 살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잊었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생각해 낸다.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얻고,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아 위대하고도 험난한 도전을 떠나게 되는데...



나사렛예수 (Jesus of Nazareth, 1977) ALL

10, 17, 24, 31일

감독: 프랑코 제피렐리 출연: 로버트 파웰, 앤 밴크로프트, 올리비아 핫세, 안소니 퀸

1부 93분 / 2부 92분 / 3부 92분 / 4부 101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성모 마리아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언한다. 새로운 메시아가 태어나리라는 소문에 불안을 느낀 헤롯왕은 박해를 가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헤롯왕의 추적을 피해 베들레헴으로 도망간다. 마침내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의 메시아로서 가르침을 시작하게 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등 기적을 계속한다. 그동안 압박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의 소식이 전파되면서 예수님은 무수한 제자들을 거느리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부패한 생활과 온갖 비방과 책략에 시달리던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죄지는 자들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베드로가 첫 다회가 율기 전 세 번 예수님을 부정하리라는 것과 가롯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다.



구원의 그리스도

1931, 폴 란도프스키(Paul Landowski)
